



글 | 신현배  
시인 · 아동문학가

# 가난 아주머니 배나무



옛날 스페인의 어느 마을 외딴집에 늙은 아주머니가 혼자 살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이름은 가난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름 그대로 몹시 가난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집에 있는 것은 낡아빠진 의자와 삐걱거리는 침대, 그리고 한 그루 배나무뿐이었습니다.

배나무에는 해마다 달고 맛있는 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이 배들을 시장에 팔아 생계에 보탬으로써, 동냥으로 근근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열릴 때는 조무래기 아이들 때문에 골치였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마구 배를 따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막 잠 자리에 들려는데, 누군가 아주머니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을 열어 보니 누더기 옷을 걸친 거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춥고 배고파서 들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시 몸 좀 녹이다가 갈 수 있을까요?”

거지 노인은 매우 추위에 목소리마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들오들 떠는 모습이 불쌍하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동정심 많은 아주머니는 거지 노인을 집 안으로 들여 보내 빵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집은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 침대를 빌려 드릴 테니 주무시고 가세요.”

아주머니는 거지 노인에게 침대를 내주고 자신은 방바닥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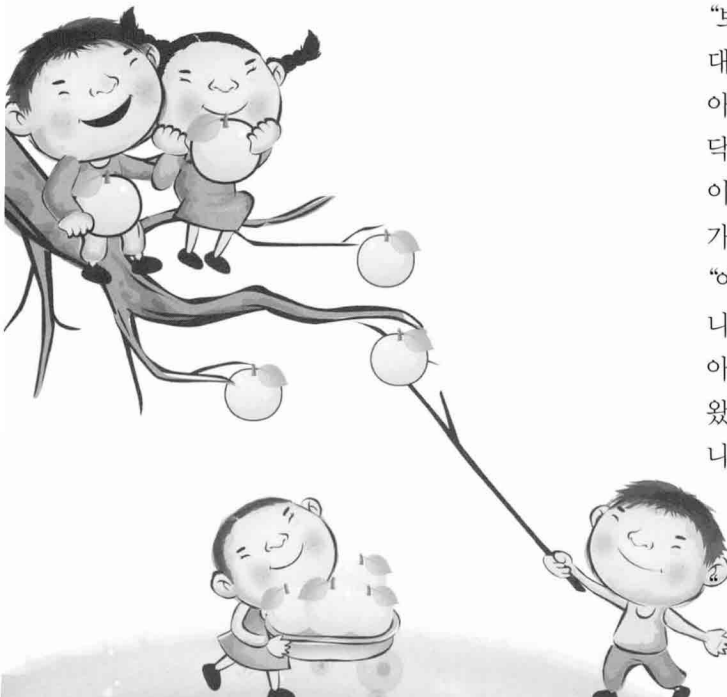
이튿날 아침, 거지 노인이 길을 떠나려 하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침은 들고 가셔야지요. 제가 먹을 것을 구해 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주머니는 마을로 가서 빵 한 조각과 채소를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지 노인에게 아침을 대접했습니다.

거지 노인은 집을 나서기 전에,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 곳곳을 다녀봤지만 당신처럼 착한 분은 처음입니다. 당신이 베풀어 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데,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 저지 노인은 하늘나라에서 온 성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돕는지 알아보려고, 하느님이 그를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마당에 있는 배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배나무는 제가 가장 아끼는 나무예요. 가지가 휘어지도록 맛있는 배가 많이 열리지요. 그런데 요즘은 동네 꼬마 녀석들이 배를 자꾸 따 가는 바람에, 시장에 내다 팔 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배나무에 올라간 사람은 찰싹 달라붙어 내려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려오라는 제 말이 있기 전에는요.”

“알겠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요.”

성자는 이렇게 말한 뒤 아주머니의 집을 떠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하얀 배꽃이 피더니, 가을에는 주먹만한 배가 열렸습니다.

어느 날, 동냥을 나간 아주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배나무를 보았습니다. 동네 조무래기 아이들이 배나무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배를 따려고 배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그 꼴이 우스워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호호, 꼴좋다. 남의 배를 열심히 훔쳐 가더니 모두 벌을 받았구나. 이제부터 너희들은 평생 배나무에 달라붙어 살아야 해.”

아주머니의 말에 아이들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주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배를 따 먹지 않겠어요. 저희들을 나무에서 내려오게 해 주세요.”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동정심 많은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이번 한번만 용서해 주지. 다시는 배를 따 먹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만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아주머니의 말이 떨어지자, 아이들은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배나무 근처에 얼씬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배를 훔치러 왔다가 호되게 당한 일이 온 동네에 소문났기 때문이었습니

다.

이리하여 아주머니는 근심을 덜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배를 고스란히 시장에 팔 수 있게 되어 살림 형편도 나아졌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가난 아주머니는 백 살 가까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주머니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승사자였습니다.

“가난아,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 백 살 가까이 살았으니 세상에 미련이 없겠지?”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좀더 오래 살고 싶어요. 평생 어렵게 지내다가 늘그막에야 겨우 고생을 면하게 되었거든요.”

“미련을 버려라. 떠날 시간이 되었으니 어서 가자.”

“알겠어요. 제가 짐을 꾸리는 동안 배나 몇 개 따서 드세요. 우리 집 배는 아주 달고 맛있답니다.”

“허허, 그래. 네가 아주 친절하구나.”

저승사자는 배를 따려고 배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저승사자는 질겁을 했습니다. 몸이 나무에 달라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 아주머니가 저승사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나무 위에서 지내세요. 당신은 내가 내려오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나무에서 내려올 수 없답니다.”



저승사자가 배나무에 달라붙은 뒤로, 세상에는 죽음이 사라졌습니다. 노인들은 늙기만 할 뿐 죽지 않았으며, 전쟁터에서도 다치기만 할 뿐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머리가 잘린 사람도 죽지 않고, 두 발로 버젓이 돌아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갔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사람들은 저승사자를 찾아 나섰다. 그리하여 가난 아주머니네 배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저승사자를 발견했습니다.

저승사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구하려고 이 나무에 올라오지 말아요. 나무에 붙어 떨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도끼를 가져와 배나무를 베려고 했습니다.

이 때 가난 아주머니가 나타나 외쳤습니다.

“배나무를 베지 말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무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승사자를 구하려면 배나무를 베어야 해요. 죽지 못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승사자가 필요하니까요.”

“나무를 베다고 해서 저승사자가 나무에서 풀려나진 않아요.”

아주머니는 저승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저승사자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실래요? 그러면 나무에서 풀어 드리지요.”

“그래,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 보아라.”

“제가 부르기 전에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약속하실 수 있죠?”

“좋아, 그렇게 하지.”

저승사자는 나무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자 그 동안 죽지 못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죽은 사람들을 저승으로 데려가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 뒤 가난 아주머니는 저승사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가 살아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언제나 가난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

